

단풍옷 입은 호남, 각종 축제가 반긴다

전남-함평 국향대전·강진 다산 남도 유배길 걷기 등
전북-전주 발효식품엑스포·고창 질마재 문화축제 등

만추(晩秋)에 전남·북 지역 곳곳에서 국화와 오색단풍을 테마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함평과 익산, 고창에서는 형형색색 국화가, 남원에서는 오색단풍이, 전주에서는 온갖 먹거리가 가을여행에 나선 행락객을 유혹한다. 이번 주말 개막하는 전남·북 지역 주요 축제와 행사를 소개한다.

◇전남=함평 국향대전은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를 주제로 다양한 국화작품을 선보인다.

독립문과 '마법의 성', 9층 꽃탑 등 대형 기획작품과 한 줄기에서 1538송이의 꽃이 피는 '천간작'과 300송이 내외의 '다룬대작' 등 수백여 점의 분재 작품도 전시된다. 특히 코끼리 가족·호랑이·코뿔소 등 '국화로 만든 동물원'은 축제의 백미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서편제 보성소리는 젊은 판소리꾼과 고수들의 경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중요 무형문화재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나도 명창'과 '보성소리 한 대목 배우기'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중 해상선사를 만나기 위해 걸었던 다산조망~백련사 '남도유배길'을 걷는 힐링길



가 행사가 강진에서 개최된다.

'남도 유배길에서 다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걷기 체험행사에는 다산 연구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협회 이사장의 '남도 유배 길과 다산 정약용' 특강도 마련된다.

천년고찰 해남 미황사에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과불제가 열린다.

폭 5m·높이 12m 크기의 대형 과불탱화(보물 1342호)를 사찰 앞마당 불단에 모시는 과불이온 의식을 시작으로 한해 농사의

■전남·북 주요 축제 일정

지역	행사명	기간	장소
전남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	10월24~11월9일	함평 엑스포공원
	제17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10월 24~26일	서편제 보성소리전수관
	남도유배길 힐링 걷기 행사	10월 25일	강진 다산 유적지 일원
	해남 미황사 과불제	10월 25일 오후 1시	해남 미황사
전북	전주 비빔밥 축제	10월 23~26일	전주 한옥마을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10월 23~27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10월 24~11월 2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고창 미당문화제·질마재 문화축제	10월24~11월3일	고창 미당시문학관 일원
	남원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10월 24일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

수확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만물공양, 큰스님 법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수록제, 두레상 한술밥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북=전주에서는 전통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비빔밥 축제와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미식가들의 발길을 이끈다. 프로그램은 '맛있는 비빔', '즐거움 비빔', '색다른 비빔', '건강한 비빔', '더불어 비빔' 등 5개 세션을 중심으로 배워진다.

20개국에서 370여개사가 참가한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전세계 다양한 발효식품을 한눈에 보여준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장류와 젓갈을 비롯해

유럽의 와인과 치즈, 올리브 오일, 미국의 노니, 일본의 사케 등 각 대륙의 발효식품을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마르사지 석

탑과 왕궁리 5층석탑 국화작품과 1260㎡ 크기의 다룬대작 등 국화작품 12만점을 선보인다.

요맘때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인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일대는 노란 국화물결로 출렁인다. 질마재 문화축제는 미당 시문학관 일원에서 미당 시화전과 창극공연과 보물터켓 종이를 찾으면 농산물로 바꿔주는 '국화길 보물찾기'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미당 문학제는 '미당시 읽고 맛있게 달기'와 '시인과 함께하는 미당 이야기', '미당 백일장대회'로 꾸며진다.

이 밖에도 '뱀사골 단풍제'는 뱀사골 입구에서 지리산 천년송까지 2.5km 구간의 탐방길을 따라 걸으며 절정에 달한 지리산 뱀사골의 화려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소식

군산, 이스타항공 비행기 정치장 유치

보관·수리·정비 등 지원

연간 수천만원 지방세 수익

군산시가 최근 이스타 항공의 비행기 정치장을 유치했다. 비행기 주소를 김포에서 군산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비행기 정치장은 비행기의 보관·수리·정비 등 일련의 비행기 운행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류장이다.

군산시는 "최근 이스타 항공의 비행기 1대 주소를 김포에서 군산으로 옮겨줌으로써 앞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지방세 수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타 항공은 인천 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8개 공항에 있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비행기 정치장의 확보 여부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효과 및 항공기 정비기술 등에 대한 지역도시 위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스타 항공은 올해 안으로 비행기 1대를 더 옮기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군산으로 비행기를 옮겨 지방세수 증대, 관광효과 등 기업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50만 국제 관광기업도시 건설과 행복도시 군산만들기에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8일 국립중앙박물관서

한·중·일 3국 학자 토론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28~29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대근)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회장 김석태), 천도교(교령 박남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학농민혁명, 평화·화해·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 아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동학 농민혁명의

의미 ▲동아시아의 미래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에만 몰두해 온 그동안의 연구에서 탈피해 청일전쟁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 동아시아 3국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민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성기자 parkks@

담양 봉산초 방과후 프로그램, 사교육 절감 모범사례 뽑혀

'창의경영학교 공모전' 장려상

난타 등 14개 과정 인기리 운영

담양군 봉산초등학교(교장 윤진)가 지난 17일 교육부 주최·한국교육개발원 주관의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일반학교 적용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봉산초는 사교육비를 경감해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방지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 전액 무료를 원칙으로 다채로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봉산초는 관악부와 난타, 바이올린, 미술, 컴퓨터, 원어민 영어, 골프, 창의과학, 돌봄교실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끼와 실력, 꿈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효자동아리와 나눔 연주단 공연을 통해 봉사활동과 연계시켜 학생들의 인성



담양군 봉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난타 연주를 배우고 있다.

함양에도 힘썼다. 앞서 봉산초는 지난 2월 '바른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최우수학교 교육

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진 교장은 "앞으로도 '방과후 학교' 운영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비 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교육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방과후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순창군립도서관 내일 '책나눔 한마당'

1권 가져가면 2권으로 교환

캐릭터 사진찍기 등 행사 다양

"다 읽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시면 두 권과 바꿔 드려요."

독서의 계절 10월을 맞아 도서교환 장터인 '책나눔 한마당'이 순창에서 열린다. 순창군립도서관과 (사)한국국민협회 순창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서교환 행사에 활용될 도서는 순창군립도서관에서 1000권, 순창문협에서 200권 등 1200여 권을 기증받아 진

행한다. '책나눔' 행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출간된 도서 1권을 가지고 오면 2권과 바꿔주는 행사이다. 군립도서관에서 준비한 도서는 민간 도서기증 운동가로 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이용해 기증자의 뜻과 순창군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도서교환 외에도 '동화속 캐릭터와 사진찍기, 팬시우드 열쇠 고리 제작, 감성글씨 캘리그래피, 순창 문협 시화전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참가자들을 맞는다. 체험부스 3곳을 부모와 함께 돌아본 어린이에게는 달콤한 솜사탕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돼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농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육,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8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